

심민 입실군수,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장·군립도서관·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등 점검

심 민 입실군수가 오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행정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 군수는 민선 8기 3선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강조하며 연일 현장을 누비고 있다.



심 민 입실군수가 오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행정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26일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와 오수 군립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해 생활체육과 문화 기반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전지훈련센터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숙소·휴게공간·세탁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로, 건축면적 1,217㎡ 규모에 숙소 26실(51명 수용), 휴게실, 세탁실 등을 갖췄다.

이러 오수면 행복복지센터 내 오수 군립도서관으로 이동해 어린이 자료실, 집중학습실, 일반자료실 등을 둘러보며 공간 활용과 문화 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했다.

오수 군립도서관은 2021년부터 올해

까지 총 28억원이 투입된 문화인프라 시설로, 900㎡ 규모의 공간에 일반·어린이 자료실, 집중학습실, 독서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앞선 28일에도 우기 대비 관내 재해 예방 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 실태를 파악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시설설계용역을 추진 중인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장으로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상습 침수지역의 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해 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심 군수는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없는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심 민 군수는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침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이 절실하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민 친화적인 정비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 성료

고향사랑기부제 연계로 1억3300만원 기부 유치

순창군(군수 최영일)은 지난 26일 용평산과 섬진강 일원에서 개최한 제2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 가 전국 러너와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진행된 힐링형 스포츠 이벤트로, 8km와 21km 두 개의 코스에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고향 사랑기부에 참여한 800여 명이 참가해

순창의 봄 풍경을 만끽하며 레이스를 펼쳤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최영일 순창군수,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황의욱 순창아너스클럽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순창을 응원하며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트레일레이스는 단순한 마라톤

을 넘어서 기부와 도농 교류를 결합한 지역 밀착형 행사로 기획됐다.

참가 자격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이는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후일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대회 결과, 총 1억 3,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순창군 생활민증과 기념품을 제공받아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누렸다.

대회는 오전 8시 하프코스(21km) 출발을 시작으로, 8시 40분 개회식이 진행된 후, 오전 9시에 8km 코스가 출발하며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어졌다. 각 코스에서는 실력 있는 러너들이 경쟁을 펼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8km 코스 남녀부 우승은 박영운씨와 윤혜진씨, 21km 코스에서는 고정웅씨와 조정애씨가 경쟁을 펼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섬진강 트레일레이스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기부, 지역사랑, 도농 상생의 가치를 모두 담아낸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순창의 자연을 배경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민 기자



남원시, 교육발전특구 사업 박차

시범지역 운영 2년차 맞아 교육지원 사업 적극 추진

남원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차를 맞아 교육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원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2024~2026년까지 3년간 국비 9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사업으로 △사교육걱정없는 학습플랫폼 운영 △찾아가는 ICT 교육(SW) △IB운영학교 지원 △유소년스포츠 육성학교 지원 △미래신산업 특성화고 지원 △국악역량강화 특별캠프 △찾아가는 국악문화 예술교육 △새싹인재 프로그램 △특성화고 K-전라산업 강화 △MOU 체결국 문화교류 등이 있다.

지난 1차년도 사업 중 찾아가는 ICT 교육은 초·중·고생 9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SW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과 연계한 메이커톤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팀워크, 문제해결 능력

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융성중 국악관현악단은 본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 1월 라오스 해외공연과 교육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참여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자부심 향상과 프로그램 만족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남원시는 2025년에도 전년도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10개 중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스마트교육, 교육과정 특성화, 지역특화산업 연계 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집중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신장부대 예·체능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발전특구 분야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선택 기회 확대

임실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을 추가로 선정, 기부자들에게 대한 담례품 선택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

군은 최근 2025년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7개 품목을 추가하며 총 6개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기 접수된 공개모집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지역 정체성 반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담례품은 총 6개 업체에서 공급하게 된다.

집콕 꾸러미는 ‘임실고추냉이농산물가공관매(주)’, 영경귀 가공품은 ‘임실생약농조합법인’, 흑염소 진액은 ‘해보라농장’, 과일·채소 주스는 ‘썬썬실애플’, 과일청류와 옥 주수는 ‘재



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공급하며, 숙박권은 ‘임실치즈마을’에서 제공해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꽃다발 등 공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재공모를 통해 추가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실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은 총 39개 품목, 22개 공급업체로 확대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식중독 예방 비상방역체계 가동

남원시 보건소는 매년 5월부터 운영하던 식중독 예방 비상방역체계를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긴 28일부터 가동했다. 이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춘향제 기간 중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전문가들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생활화로 음식을 먹거나 준비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기 △음식물 보관 온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신선식품은

냉장(5℃ 이하) 또는 냉동(-18℃ 이하) 상태로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은 80℃ 이상에서 따뜻하게 유지 △익혀 먹기 등으로, 육류, 생선, 계란 등은 내부까지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춘향제 축제에 참여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을 알리는 OX 퀴즈 캠페인 및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만들기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공모 최종 선정

남원시는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한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집수리, 청소, 소독·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공은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인 광역자활기업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남원시는 오는 5월 14일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뒷좌석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

남원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내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와 뒷좌석 카드단말기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개인택시 242대에 법인택시 70대 등 총 312대에 대해 약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상기록장치와 뒷좌석 카드단말기를 보급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택시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마찰 등의 상황에서 정확한 영상확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사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여건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택시 뒷좌석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택시 이용자의 카드 결제 편의를 높이고, 기사와 승객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에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제 단말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에 설치되어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승객이 기사와 접촉할 필요 없이 터치패드 단말기 위에 카드 혹은 휴대폰을 얹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자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단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